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 篇(8)

齒協歷史編纂委員會 供提

忠南道齒臨時總會 <1948年>

1948年 忠清南道齒科醫師會 臨時總會는 7月 11日 大田府元洞 厚生會館 2층 會議室에서 開催하였는데 出席者 및 總會狀況要旨는 다음과 같다.

出席者(無順)來賓一忠清南道保健厚生局 醫務課長 崔英燮, 同藥務課長 鄭昌周, 同豫防醫學課長 閔丙禹, 同齒務係長 鄭承熙, 同齒務係 宋基夏, 朝鮮齒界編輯部長 崔曉峰, 會員一大田 任胄赫, 朴三用, 張博, 鄭奇永, 柳秉呂, 大川 崔一漢, 熊川 李植, 江景 吳斗鎭, 方思郁, 天安 洪豊植, 黃泰鍾, 元爽喜, 禮山 崔源仲, 申昌均, 扶餘 申應鉉, 長次朴成實, 韓山 劉時澤, 公州 辛慶得, 朴完根, 論山 金鍾善, 鳥致院 方思喆, 成樂斌, 溫陽 李龍八, 金鍾聲外委任狀 2名.

定刻보다 1時間 늦게 下午 2時에 鄭奇永理事司會로 國旗拜禮, 殉國英靈默想 등 國民儀式이 있는 다음 開會辭에 任胄赫會長 來賓祝辭에 崔醫務, 鄭藥務, 閔豫防醫學 등 各課長

▲ 經過報告 = 朴三用副會長으로부터 定期總會(4月 11日)以後의 經過를 報告하자 朴成實 副會長이 ① 5月 1日 字公文으로 齒科醫師에게 <폐니실린>을 준다고 한것 ② 顎骨髓炎은 外科에 屬한다고 李容高 厚生이 言明한것 ③ 第8次 民需物資를 中央의 公文으로 配給中止한 것 등에 關한 質問을 하여 朴三用 副會長이 詳細히 答辯한 즉

朴成實一厚生部長이 <上下顎骨髓炎>은 外科에 屬한다고 말하였다니 이것은 너무나 認識不足한 말이다.

라고 怒發大發하고 <그런 것은 討議事項에서 論議하고 빨리 進行하자>는 말에 <勿論 討議事項에서도 말하겠지만 經過報告에 對한 質問도 받아주어야 한다>고 또한번 興奮하여 議場이 騷亂한 가운데 任胄赫 議長으로

부터 <朝鮮齒科醫師會 總會及學會 報告>가 있었으며 이어 討議事項에 들어가다.

(가) 金配給比率件을 上程하여 任議長이 提案理由를 說明하니

金鍾善一免許는 <限地>이지만 齒科診療上에도 <限地>가 있는가. 限地齒科醫師라고 <반쪽>만 治療하지는 않을것인데 金配給比率에 있어서 齒科醫師와 限地齒科醫師의 差別이 甚한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그 比率를 訂正할 道理는 없는가.

하고 <限地>로서의 不滿을 表明, 朴成實이 <朝鮮齒界>의 朝齒總會記錄을 가지고 40g差를 두게된 說明을 할려고 하였으나 <朝鮮齒界>는 나도 읽어보았다고 金鍾善은 冷笑.

方思郁一朝鮮總會席上에서 限地齒科醫師에게는 齒科醫師의 C級으로부터 40g差를 두자는 것이 可決되었을 때 그 不當性を 指摘하였더니 李有慶이 뒤로와서 하는 말이 <그런말을 하면 議場이 修羅場이 된다. 여기에서 決議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厚生當局에서 作定하는 것이니 諒解하라> 하였는데 結局 總會決議대로 되었다.

金鍾善一如何間 限地齒科醫師에 對한 金配給率을 訂正할 수 있는가 없는가.

黃泰鍾一中央에서 作定한 것을 道에서 道齒科醫師會 決議로서 訂正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金配給率 不滿으로 議場이 騷亂하였는데 任議長要請으로

崔曉峰記者一내가 들은바에 依하면 限地齒科醫師의 70g이라는 것은 訂正할 道理가 없을것이다. 朝齒總會 決議를 參酌하여 厚生當局이 決定한 比率을 道齒科醫師會決議로서 訂正한다는 것은 至難할 것이며 限地齒科醫

師는 前回와 같이 70g으로 되어있으나 齒科醫師는 最低가 110g으로된 代身 最高 180g, 160g, 140g등이 없어진 것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것이다. 70g을 준다고 鬭爭하는 것은 不快感이 었다. 第3 회에도 70g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第4 회에 70g준다고 떠드는것은 生覺할 餘지가 없지않을까. 어쨌든 40g差의 不滿을 말하는 것보다 <限地>란 두자를 없애도록 努力하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한다.

朴三用-一齒科醫師의 等級을 이자리에서 作定하자.

崔曉峰記者-一參考로 말하겠다. 齒科醫師에 對한 配給量은 平均 117g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그 平均量에서 7g式을 빼어가지고 A級과 B級을 만드는 것이다. 鄭齒務係長이 或 平均量을 算出해 보았는가.

鄭齒務係長-아직 算出해 보지 않았다. 講習을 받지 않은 限齒를 除外한다면 平均 110g은 될지 모르나 117g은 되지 않는다.

崔曉峰記者-金配給總量(忠南)은 얼마나 되나?

鄭齒務係長-2千 8百 30g이다.

崔曉峰記者-그 總量에서 限地齒科醫師 1人當 70g式의 配給量을 除外한다면 齒科醫師 1人當 117g이 될터인데?

鄭齒務係長-모르겠다.

齒科醫師에 對한 配給量을 모르고 等級查定할 수 없으므로 結局 等級查定은 委員會 一任으로 할것을 可決

(나) 料金表=醫療報酬額草案은 通過시켰으나 鄭齒務係長要請으로 道當局의 認可를 얻어서 實施하기로 可決

(다) 第8次 民需物資件과 其他件(衛生材料及 齒科器材及經路)=任議長으로부터 衛生材料 및 藥品은 中央의 公文關係로 第8次配給은 못하였으나 第9次부터 配給하겠다고 藥務課長談이었다는 것과 電氣配除外 21種의 特別配給品이 있다는 것을 詳述하였는데 特別配給品은 總會閉會後 抽籤으로 配定하기로 決定하고 第8次民需物資配給品의 行方を 糾明하자는 強硬論도 있었으나 第9次配給에 特別考慮할 수 있으며 過去를 너무 追窮 말고 앞으로 協調하자는 醫務, 藥務兩課長의 非公式言明에 對하여 圓滿한 配給에 協調할 것을 採擇.

(라) 朝鮮齒科醫師會總會와 學會에 對한 報告=討議事項에 들어가기 前에 任議長으로부터 報告가 있었으므로 再報告를 省略.

(다) 限地齒醫年限과 地域問題=限地醫師는 年限이 없는데 限地齒科醫師만에 年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程度의 論議가 있었을 뿐이고 會로서 建議한다든지 地域問題를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었다.

(바) 其他 <電氣問題> 任議長으로부터 話氣問題에 對한 朝齒總會結果를 報告한다음 道齒科醫師會로서 電

氣會社에 交涉할 것을 可決.

厚生部獨立設置件=政府機構組織案에 <厚生>이 社會部에 編入된 것을 反對하고 獨立部로 設置하라는 中央各團體의 熱烈한 要望運動에 道齒科醫師會로서 協調할 것을 採擇하고 第8次 民需物資配給件의 그 行方を 糾明해서 配給하라는 洪豊植의 再動議否決.

페니실린件=朴成實로부터 全北實情을 例證하면서 忠南의 不平을 吐露하고 페니실린配給이 어떻게 되었는지 糾明하자는데 對해 道當局者는 美國人顧問이 내놓지 않아서 配給을 못한다고 말하였으나 配給받도록 努力할 것을 可決.

支部設置件=▲ 大田支部(大田府, 大德郡, 燕岐郡, 公州郡) ▲ 天安支部(天安郡, 牙山郡) ▲ 洪城支部(洪城郡, 靑陽郡, 禮山郡, 唐津郡, 瑞山郡) ▲ 江景支部(論山郡, 扶餘郡) ▲ 長項支部(舒川郡, 保寧郡) 朴成實動議를 可決하고 下午 5時 閉會後 同席에서 懇親宴이 있었다.

慶尙北道齒科醫師會鬱陵島診療隊報告書<1948年>

慶尙北道齒科醫師會는 鬱陵島無料診療隊의 派遣을 앞두고 崔俊卿, 徐永圭兩會員으로 하여금 1948年 8月 2日부터 2週間에 걸쳐 鬱陵島의 交通, 地理, 醫療狀態, 保健行政狀況, 氣候, 風俗등을 踏查케 하였다.

▲ 診療隊員名單(年齡順) 隊長 崔海雲, 隊員 金永祚, 金鏞泳, 金鍾來, 秋章燁, 白洪鎮, 郭學台, 白龍鳳, 崔俊卿, 李善玉, 看護員史春子, 史光子

◆ 1948年 8月 24日 上午 10時 俊明齒科醫院에 集合하여 嶺南日報社, 大邱時報社, 慶北道廳에 人事次尋訪. 下午 3時 30分 多數人士歡送裡에 大邱驛을 出發하여 同 8時 20分 浦項驛에 到着, 明月館에 投宿하였다.

◆ 8月 25日 一同 7時起床, 朝飯後 崔海雲 外2名이 浦項港務署에 가서 船票를 買得. 下午 8時 40時分 頃浦項을 出帆, 風浪이 甚하여 翌日 上午 10時 30分(2時間延着) 鬱陵島 道洞港에 이르렀으나 波濤에 困에 埠頭に 내지 못하고 舶머리를 捲려 西面台霞洞港에 碇留, 一同 李鍾午警衛(울릉도경찰서 總務主任)의 案內로 上陸하였다.

發動船으로 道洞港에 빨리가고져 台霞洞港을 떠났으나 波濤가 甚하여 不得已 南陽洞에 上陸하였다. 台霞洞에서 이곳(南陽洞)까지 20里, 이곳에서 道洞까지 30里인데 目的地道洞港이 가장 波濤가 甚하여 船便은 不可能한 일이고 陸路가 있기는 있으나 本島의 陸路는 車馬

를 利用할 수 없는 山길이라 할 수 없이 一泊, 밤에 本島島司가 路地에 出張途中 本隊에 來訪.

◆ 8月 27日 새벽에 起床하여 본즉 如前히 바람은 차지 않고 바다는 怒濤가 날뛰고 있었다. 船便은 危險함으로 陸路를 利用하기로 可決하고 荷物 때문에 崔海雲, 白龍鳳兩人은 決死의 覺悟로 船便을 利用하기로 하고 남은 一同은 朝飯後 陸路로 道洞을 向하였다. 山으로 海岸線으로 目的地에 向하는 一同의 모습은 聖業을 遂行하려는 意欲에 넘치는 聖스러운 光景이었다. 그러나 途中의 佳景은 終始 一同을 놀라게 하였다.

下午 2時 30分쯤 道洞에 到着, 곧 本島保健課長 田石鳳을 尋訪, 來意를 傳達하고 先發隊의 連絡이 있었기 때문에 곧 準備되었던 旅館에 投宿하였다. 隊員一行은 或是나 먼저 到着하였을까 하고 알아보았으나 그것은 虛事였다. 밤이 되도록 오지않아 斷念하고 疲困한 몸을 浦項旅館방에서 目的地道洞의 第1夜를 보내게되다.

◆ 8月 28日 새벽에 바람이 조금 잔뜩하여 좀 希望을 품게하였으나 그것도 暫間이었다. 다시 風波는 甚하여 一同을 失望케 하는 同時에 이제부터는 焦燥症마저 생기게 하였다. 雪上加霜으로 비마져 내리기 始作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殘留一行은 保健課員인 連絡員이 와서 強制的으로 人夫 8名을 募集하여 겨우 오게되었다한다. 全員 이제야 安心을 하고 來日부치 活躍할것을 꿈꾸며 就寢하다. 밤에 郭學台, 崔俊卿등은 學校當局을 訪問 講義室(教室) 準備를 했다.

◆ 8月 29日 아침 6時 30分 隊員一同은 田保健課長과 함께 機械, 藥品箱子를 人夫에게 지우고 于山國民學校에 가서 비어둔 教室에 엔진, 治療椅子等으로 診療室을 만들었다.

朝飯後 10時부터 診療를 開始, 保健課員 2名이 出頭하여 受付등 여러가지 雜役을 맡아주었다.

各科別陣容 ▲ 豫診 金永祚, 李善玉 ▲ 保存科 郭學台, 白龍鳳, 崔俊卿 ▲ 外科 崔海雲, 金鍍泳, 金鍾來, 白洪鎮, 秋章樺 ▲ 看護員 史春子, 史光子.

困難한 旅行끝에 조금도 餘暇도 없었음에도 不拘하고 조금도 疲困한 色을 보이지 않고 一心全力 各自部署에서 熱心히 診療하는 光景은 눈에 보이지 않는 愛族心과 熱誠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禁할수 없었다.

下午 1時 30分頃 上午部診療를 마치고 望月館에 가서 中食을 먹었다. 下午 2時 20分頃 診療를 繼續하여 同 5時 30分 新患 81名을 診療하고 第1日을 無事히 終了하였다.

◆ 8月 30日 上午 10時부터 診療開始하여 新患, 舊患이 時시없이 찾아오는 患者에 一同 全力을 다해 이에 應하였다.

今日은 于山國民學校兒童의 口腔檢査를 金鍍泳이 施行하였다. 其結果 要治療者는 治療에 돌리어 全部處置하기로 되었다. 下午 1時 30分頃 上午部를 마칠적에 崔海雲隊長은 腦貧血로 쓰러져 旅館에 쉬도록 하였으나 2時 20分頃 다시 診療를 繼續하였을때 崔海雲隊長이 괴로움에도 不拘하고 診療室에 나타나 一同을 놀라게 하는 한편 隊員一同 倍前의 힘을 얻어 괴로움을 잃고 診療에 餘念이 없었다.

下午 5時 30分頃 診療完了, 患者數 254名 于山國民學校 兒童의 口腔檢査時間關係로 다 마치지 못하고 來日로 延期하였다.

◆ 8月 31日 食前일찌기 藥水터에 藥水 마시러 가는 派와 바다가로 고기 낚으러 가는 派로 갈라진다. 이것은 每日아침 一同의 日課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에도 藥水터에 4.5人이 올라가서 鐵分과 炭酸水맛이 있는 藥水를 몸에 利롭다는 말에 일곱잔 여덟잔씩 마시고 내려왔다.

上午 10時 診療開始하여 新患, 舊患과 昨日 남은 于山國民學校兒童의 口腔檢査등 診療를 하였다. 세멘트充填 아말감充填, 傳達麻酔의 拔牙등 隊員全員 조금도 실사 이 없었다. 看護員 2名은 器械消毒에 쫓기어 診療를 도울 사이도 없다. 이곳 氣候는 더운편이 아니건만 모두들 이마에는 이슬같은 땀이 났었다.

下午 2時頃 上午部를 마치고 2時 40分頃 下午部診療를 繼續, 3時 20分부터 于山國民學校 講堂에서 中學生, 國民校生, 一般人들에게 李善玉이 <齒科衛生> 演題로 約 1時間에 걸쳐 講演을 하였다.

5時 50分 診療 第3日을 無事히 終了하였고 于山國民學校 兒童의 口腔檢査와 診療도 오늘 다마쳤다. 患者數 257名.

◆ 9月 1日 오늘도 食前에는 藥水터와 고기 낚기에 一行은 各各 趣味있는 곳으로 헤어졌다. 새벽바닷가의 景趣는 또한 陸地에서는 맛보지 못할 神秘境이다. 몇몇분이 낚시를 던지고 또 던지고 數없이 던지더니 結局 무마리의 방어새끼를 다래끼에 넣어 달랑달랑 들고 오는 光景도 診療餘暇의 滋味있는 모습이다.

上午 10時 診療開始, 오늘은 于山中學校生徒의 口腔檢査를 施行할 豫定이었으나 時間關係로 如意치 못하고 罹患生徒만 任意로 受診케 하고 來日은 連絡船이 오는 날이라 診療는 今日로 끝마치기로 決定하여 外科, 保存등 各各 마즈막 診療를 하였다.

上午 2時頃 上午部診療終了, 竹邊館에서 中食을 마치고 2時 50分 下午部診療繼續. 保存의 白龍鳳은 아무말도 없이 뻑뻑하여 들지않는 뜻엔진을 밟아가며 조금도 쉬지않고 세멘트, 아말감等 充填을 해내는 그 精力에는

隊員一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5時 50分終了, 患者數 211名.

곧 別室에 隊員一同集合하여 다음 諸事項을 討議決議 하였다.

1. 鬱陵島當局에서 本診療隊에게 旅費條로 支拂하는 4萬 5千圓(新聞記者合하여 13名分)을 受理할것.

1. 前記金額外에는 如何한 金品이든지 當局에서 本診療隊에 寄贈하는 것은 一切受理치 말것.

1. 當局에서 看護員 2名에게 一金 5千圓式 合計 1萬也를 手苦料로 支拂하는 것은 受理하여 當事者에게 交付할것.

1. 殘餘藥品 材料는 今後本島齒科醫療에 使用하여 달라는 意圖를 傳達하고 이것을 本島保健課에 寄贈할것 會議를 마친 後 一同合力하여 機械等 分解하여 箱子에 넣어 完全히 荷造를 끝냈다. 夕飯後 李警衛, 田保健課長이 慰勞酒宴을 베풀어 愉快한 最終日의 밤을 보냈다.

任務完遂에 安堵感을 느끼고 疲困한 몸을 旅館에서 最後의 꿈을 맺는다.

◆ 9月 2日 새벽잠 달게자는 꿈속에서 어디서인지 그림고 반가운 驪州號의 汽笛소리가 들려왔다. 一同은 잠옷그대로 벌떡 벌떡 일어나서 窓밖을 내다보니 果然 驪州號는 그의 姿態를 道洞浦口에 나타내고 있었다. 모두들 왜그렇게 반가웠는지 아이들처럼 서로 붙잡고 뛰었다. 서로서로 旅裝차리기에 바빴다.

中食後 正裝을하고 手苦끼친 各官公署에 人事를 마치

고 記念撮影등을 하고 歸路 田保健課長에게 붙들려 自宅에서 作別의 막걸리 接待를 받았다.

夕食을 일찌기 마치고 埠頭로 一同 나갔으나 貨物關係로 배는 相當히 延發할 豫定이었다. 驪州號에서 비치는 <사치라이트>에 道洞港口는 荷物질는 人夫들로 右往左往 바쁘다.

밤 11時頃 一行全員이 驪州號의 乘客이 되었다. 亦是 特別室에 자리를 잡고 갈길의 困難에 對備하였다.

사치라이트에 비쳐보이는 道洞港口는 꿈나라와 같은 幻想의 氣分을 주었다. 인제 다시 이곳을 찾아볼고? 數日間の 苦痛은 어디인지 간곳없고 다만 情들이고 돌아가는 쓰라림밖에 남지않는다.

◆ 9月 3日 배는 밤 1時頃 道洞港을 떠났다. 約 3.40分 後에는 船體가 굉장히 動搖하였다. 船長, 事務長들이 우리에게 注意事項을 알려주었다. 얼마안되어 甚한 風雨가 驪州號에 덮벼들어 乘客들은 一種의 恐怖心까지 느끼게 되었다. 한때 모두 죽은듯이 자리에 누워 꿈작 소리도 없었다.

10餘時間만에 드디어 浦項港에 到着, 배는 下午 1時 20이었다. 곧 下船하여 朝飯兼中食을 近處의 飲食店에서 마치고 下午 4時 50分頃 트럭으로 浦項을 出發, 同 9時 50分 大邱俊明齒科醫院앞에 一同 無事히 到着한 後 崔海雲隊長의 慰勞人事말을 듣고 解散했다.

(鬱陵島診療隊 總務 俊明齒科醫院長 崔俊卿의 記錄을 引用轉載 했음)



大韓齒科醫師協會誌
主幹 李承婁